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모두 얻는 방법(화해)

부산성모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초기 면담을 통한 정보(정보제공: 어머니)
- 성명 : 황00(M/44) Hepatoma (lung, stomach, spine meta.)
- 입원전 경과 :
2010년 5/10~5/15 본원 소화기내과 진단 후
6/10~6/20 서울 아산병원 치료도중
폐, 위 전이
10/28~11/3 본원 소화기내과 입원
2011년 2/7~2/18 본원 소화기내과 입원후
Bone meta-RT 위하여 00대
병원 전원, RT도중 하지 마비
4/4~본원 혈종내과 입원, 4/20 호스
피스 병실로 이실

<환자 상태>

- ECOG : 4단계(1개월 전 RT로 인해 하반신 마비), 의식 : Alert~drowsy
- 구강섭취 : NPO, NRS : 2/10(PQRST 측정 불가능)
- 욕창 : Sacrum(stage 4), greater trochanter, Both heels, MRSA 균 +
- 배뇨 : Foley Keep · 배변 : 소량씩 자주
- 호흡곤란 : - · 오심구토 : -

<개인력>

- 직업 : 사업실패(신용불량), 00대학 사진과 졸업,
- 결혼 : 연애결혼 후 이혼(8년 전)
- 종교 : 무(無), 성격 : 급하고 고집이 있다

- 질병에 대한 반응 : 진단 시 과장님이 직접 말해주었다.
-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모를 것이다.
- 환자가 원하는 것 : 의증을 알 수 없지만 아들이 보고 싶을 것이다

<가족력>

- 가족구성 : 부모, 누나, 형, 아들 1, 주돌봄 제공자 - 어머니
- 질병에 대한 반응 : 알고 있다(간암 4기라고 과장님이 말해줌)
-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 인식하고 있다(1년전 여명이 1년정도라고 말해줌)
- 가족이 원하는 것 : 더 살아 오래 보고 싶지만 고통스러워 하니 안스럽다

<경제력>

- 주소득원 : 신용불량, 파산신고 후 급여 1종 신청중, 진료비 - 부담된다
- 경제적 지원여부 : 가능하면 받고 싶다, 사보험 가입 여부 - 없다

<퇴원후 계획>

- 주거환경 : 빌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기거
- 가정간호계획 : 욕창 때문에 추후 계획
- 임종계획 : 화장해서 추모공원에 모실 계획이며 영정사진은 준비됨

<사정 Assessment>

- 신체적 부분 : 욕창치료 및 관리/MRSA관리
- 심리적 부분 : 불안/ 불면/착란경험/우울
- 사회적 부분 : 경제적 어려움, 사업실패, 신용불량, 파산 후 가족 몰래 이혼 진행, 병들어 부모님 집에 들어와 모든 것 알게 됨
- 영적부분 : 성모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보호자의 요청
- 환자 및 가족적 측면 : 8년 전 이혼 후 12살 아들 부인이 양육, 아들을 보고 싶어 하나 정기적인 만남은 없었고 환자누나를 통하여 아들을 가끔 만나고 부인과는 왕래가 전혀 없었음

진료 부분

- HBV+, LC ChildA, DM으로 본원소화기 내과진료.
- 2010년 5월 HCC진단(본원)
6월 TACE #3, RTx 3wks (타병원)
- 2010년 12월 PD(폐,위전이) : sorafenib복용시작
- 2011년 2월 7일 외상없이 backpain 발생하여 본원방문, T spine MRI 시행 : T4 spine body metastasis, Compression fracture, 방사선치료 위해 타병원 전원
- 2011년 2월 타병원 전원후 방사선치료중 SCCS 발생하여 paraplegia 진행.
- 2011년 4월 4일 본원 완화적 치료위해 본원 내원, 내원시 bed ridden state, bed sore G4, 본원 내원 전 병원에서 fever 없이 CRP증가, culture MRSA, hypotension 소견보임
3월 27일 ~ vancomycin, dopamin 6mcg/kg 치료

간호 부분(간호진단과 계획)

<환자상태 사정 1>

- Mental : drowsy, confusion
- ECOG : 4단계(하지 마비 약 1달전 -00대 병원에서 RT시행)
- 욕창 : 하지 마비로 동반 wound c/s : MRSA 일반 병동 격리
- 식사 : NPO 물만 소량 섭취하나 삼킴 장애 동반 영양제 투여 중

- state, 이노제 투여 중
- 수면 : moderate · 보호자 어머니가 옆에서 간병중임.

<환자상태 사정 2>

- 통증 : 전반적인 상태 저하 동반, 정확한 의사 표현부족으로 PQRST 표현 안됨
background pain : face pain scale 2/10
- 배변 : 4/3일 변 보심 · 배뇨 : foley keep

<진단 1 : 건강의 변화와 관련된 사회적 고립감>

- 환자 특성 : 이혼 후 어머니가 간병, 어머니를 알아보나 '이 사람만 보면 구토 나올 것 같 다' 표현, 등산, 사진 취미 활동 다양, 항상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누워 있음
- 이론적 근거 : 고립된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서고 관계를 찾지 않는다.

간호계획

- 환자 곁에 있어 주며 환자의 말을 경청, 상처 치료로 수녀님과 신뢰감 형성,

- 좋아 하는 음악 제공 (이문세 노래), 환자 방문 시 마다 밝은 표정 대하기
- 실습학생들과 함께 음악제공, 환자의 행동에 대해 정직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 많은 시간을 가족, 친척, 친구 등 의미 있는 사람과 보내도록 계획

<진단 2 : 임종돌봄>

- 환자상태 : 본 호스피스 병동 임종지침서 적용하여 평가
- 4월 26일 전반적인 상태 저하 동반-호흡곤란 : SPO2 85% , BP 70/50
- 의식 : confusion, 간헐적인 한숨을 쉬거나 앓는 소리 내나 통증질문에 '싫'하며 손가락을

- 입에 가져다 대며 눈 감으심
- 4월 27일 아버지 보고 싶다고 표현
- 간호계획
- 주치의 과장님께 환자 상태 보고, 팀원들에게 환자 상태 알림
-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 알리고 임종 시 나타나는 증상, 임종지침서 제공하면서 교육
- 임종 증상 관리, 필요시 처방 난 약물 투여 및 취소
- 4월 30일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독립된 병실 제공-임종실로 옮김
- 마지막으로 소실되는 감각이 청각임을 설명 후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표현하도록 격려
- 5월 1일 임종기도 실시- 임종

사회복지 부분

- 주거형태 : 부모님택에서 생활, 세대분리
- 경제력 : 기초수급비 월 40만원, 의료보장 : 의료급여 1종(2011. 3월부터)
- 의뢰자 : 담당의사 및 상처전문간호사
상급병실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사유 및 정서적 지지
- 입원 당시 : 7인실 사용하였으나 상처(욕창) 부위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같은 병실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만요인 => 2인실로 전실
- 상급병실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담당의 의뢰-환자모친과 면담
- 정서적 지지를 위한 병실 방문

Assessment(강점)개인

- 상처전문 수녀님에 대한 신뢰가 큼
- 현재 자신의 의료적 상황에 대해 수용의 자세
- 간병 시 모친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모친을 이해하려는 감정

- 가족들의 적극적 정서적 지지

Assessment(사회 심리적 평가)

- 어머니 : 지지적인 표현부족
- 형제 : 우애가 깊으며 적극적인 정서적 지지, 누나가 의료비 부담
- 아버지 : 시각장애 5급, 당뇨, 뇌혈관질환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움
- 가족(부인과 자녀) : 이혼 이후 왕래 단절, 임종시에도 알리지 않을 것이라 얘기함.
- 환자 : 예술적 감각(사진,음악,연주노래 등) 뛰어남, 모친, 형제 외 대인관계 단절된 상태, 부인, 자녀에 대한 그리움, 모친의 간병태도에 대한 불만 : 직접적인 표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모친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감

심리(정서)사회적 개입

- 지속적인 병실 방문, 심리 정서적 지지 제공

- (00의대 실습생 “작은 음악회”, CD 플레이어-가수 이문세)
- 모친과의 갈등 : 환자 누나와 함께 화해 시도
- 일반병동 : 음악 프로그램에 환자와 함께 참여 (완화의료병동 전실 추진)
- 각종 프로그램 참여 독려 및 건강상태 관찰
- 자원봉사자 (교리) · 보호자(누나) 상담: 부인과 자녀에 대한 그리움
- 부인과 자녀에 대한 만남 주선: 팀원들이 의논하여 영적 담당 수녀님께 의뢰
- 방문→용서→화해를 통해 마지막 삶 정리함.

경제적 평가 및 개입

- 완화의료병동 전실함으로 병실료에 대한 부담 해결

- 복지간병인 이용
- 공동모금회 : 본인부담금 300만원 이상시 재신청 요청
- 마텔암 재단 의뢰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 소액지원 신청

종결(사별가족 돌봄)

- 발인까지 추모원 방문(연도, 장례미사)
- 유가족 위로, 호스피스팀원과 가족과 지속적 관계 유지
- 자원(교리)봉사자 연계: 인근 성당 교리 중, 지속적인 가정방문
- 사별가족 안부편지 2회 발송, 사무실 방문 2회

원목(영적) 부분

새로 오신 환자와 보호자에게 첫인사를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하니 “여기에 오니 마음이 참 편안하네요.” 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환자에게 저는 여기 담당 수녀인데 앞으로 매일 자주 뵙겠습니다”. 라고 하니 환자가 누워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네.”하고 짧게 대답을 하였다.

그 이튿날 방문하니 환자는 눈인사를 하였고, “하느님을 소개해 달라고 하셨지요?” 하고 물으니 환자도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기에 교리 봉사자를 즉시 연결하여 바로 교리를 시작 하였다. 오후에 들려 하느님에 대해 들을만하냐고 물으니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다.

환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신의 느낌을 얼굴을 통하여 표현(편안한 얼굴, 반가워하는 얼굴, 찡프린 얼굴, 구토하는 표현, 조용히 하라면서 입에 손가락을 댄. 사람을 가리는 듯한 인성)하였다. 어머니 표현으로는 “수녀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한가 봐요.” 하시는데 그것은 치료를 해주는 상처전문 간호수녀님에 대한 신뢰 덕분인 듯했다. 바로 그날 같은 병실 환자분의

갑작스런 선종과 환자의 상태로 보아 기다리지 말고 세례를 먼저 주면 어떠한 상처전문 간호수녀님의 권유에 따라 신부님과 상의하여 다음날 세례를 주기로 결정하고 본인과 어머니에게 설명하니 너무 좋아하였다. “세례명을 무엇으로 할까요?” 하니 어머니께서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시길래 생일이 4월이니 4월 25일 축일을 지내는 마르코가 어때요? 하니 어머니도 본인도 좋아하였다. “그럼 이제 그대 이름은 마르코입니다“

세례를 받는 날 노래를 흥얼거리며 편안해 한다. 오전에 원목신부님의 주례로 어머니와 형님과 병실의 환우들과 보호자들, 봉사자들의 축하 속에 세례 성사와 병자성사까지 받았고 아주 행복해 하였다.

부활 대축일에는 봉성체가 있는데 물을 삼킬 수가 없어 사제의 인수 기도만 받았는데, 신부님도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환하게 반기며 맞이했고 행복해 했다.

다음날 누가 와도 반가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하라며 손가락을 입술에 대었고 처지는 듯했다. 환자의 어머니가 “자다가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

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부를 수 없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학교에서 아이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며느리에게 말할 수가 없다.”면서 난감함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손주가 제 아빠 사후 영정을 들면 좋겠는데, 들게 할 수 있을까요?” 하셔서 “그건 그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결정할 일이지 여기서 요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니 인정을 하셨다. 그런 사정을 팀이 모여 의논을 하고 담당 수녀가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보자고 결정하여 부인과 통화를 하였다. “부산 성모 병원 호스피스 담당 M수녀입니다. 혹시 아이와 아빠를 만나게 해줄 수 있나 해서요.” “그러잖아도 토요일에 보내려고 하는데요.(그날이 목요일이었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부인은 환자를 만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 생각은 부인도 환자를 만나시기 전에 풀 것은 풀고 가시도록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하니 “우린 아무 것도 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재혼을 해서 가정이 있어요.”(순간적으로 놀랐다. 부인이 재혼을 했다는 것을 환자 쪽에서는 모르는구나 싶었다. 환자의 어머니가 며느리는 재혼을 안 하고 아이하고만 산다고 하셨는데……)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가 없으셨고 또 가정이 있으시다니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아이만 보내주신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수녀님, 그 사람 이제 어렵나요.” 하였다. “예,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보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약속을 보호자에게 알렸다. 그것만으로도 보호자는 감사하며 기뻐하였다. 다음날 오전 8시 30분 쯤 전 부인에게서 전화는 옐다. “제가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잠을 한 숨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수녀님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오셔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더 이상 마음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잠을 설칠 정도면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이들은 안 보고 환자만 만나고 싶

어요.” 다른 이들의 방해로 받지 않게 방을 옮겨 놓겠다고 시간약속을 하였고 그 시간에 가족실로 환자를 옮겨 놓고 환자에게 전 부인이 올 것임을 알려드렸다. 약속시간에 부인이 왔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니 환자도 좋아하지만 부인도 오랜만에 남편을 만나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이 되었다. 다른 이들은 안 오면 좋겠다고 요구하였고, 둘 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여 그렇게 배려해 드렸다. 상처 치료를 받는 시간이 되어 상처치료 수녀님이 방문하니 아내에게 상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치료를 안 받으려는 것을 아내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고, 환자도 자기에게 2시간을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여 시간을 같이 지냈고 그 사이 어머니와 누이가 드나들며 가족이 오랜만에 시간을 같이 보냈다.(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어머니도 누이도 안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같이 만나길 원했다.) 환자복 주머니에 돈 30만원을 넣어서 핀으로 고정시켜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주머니의 돈을 아내에게 주기를 위하여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니 그것을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환자가 아주 편안해 하면서 아쉽지만 아내를 보냈다. 환자의 어머니는 모처럼 며느리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는 기뻐하셨다.

다음날 임종 전 증상들이 나타나 임종실로 옮기고, 오후에 어머니와 누이와 형이 있었고 주말이어서 아들도 함께 지내기 시작하였다. 교리봉사자에게 연락하였고 마침 부인도 도착하여 임종 전 기도를 함께 바쳤고, 가족이 임종을 지킬 수 있었다. 임종 후 기도를 바치고 사후 처치를 도와주었고 교리봉사자는 장례준비부터 함께 머물며 도와드렸다.

추모원에 방문 하여 봉사자들과 함께 연도하였다. 아이가 빈소를 지켰고 부인도 빈소를 다녀갔다. 할머니의 바람대로 아들이 제 아빠의 영정을 들었고, 부인도 장례미사 때 참석하고 장지에 동행을 하였다. 일주일 후 사별가족 방문을 봉사자와 함께 하였는데, 장례 후에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재혼을 하지 않았으면서 만나지 않으려고 재혼했다.’고 거짓말해

서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드리고 아들을 통해 며느리를 다시 인정하고 손주를 잘

키워줄 것을 믿고 있다고 며느리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였다.

자원봉사 부분

환자와의 첫 만남은 수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환우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 어머니가 계셨고 교리 봉사자라고 소개하니 반갑게 맞아 주셨다. 환우는 체격이 건장하고 키가 큰 젊은 남자 분 이었는데 상태가 심각해 보였고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면서 눈인사를 했다. 손을 살포시 잡으며 “많이 힘드시죠? 봉사자입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름을 부르며 얘기를 꺼내시자 손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했다. ‘말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은 첫날이어서 기도만 하고 갈게요. 내일 봐서 상태가 좋으면 교리 시작합니다.” 라며 성호경만 가르쳐 드리고 기도하고 나왔다. 어머니가 따라 나오시더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며 꼭 세례를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욕창이 너무 심해서 이 병원으로 옮겼는데 상처치료 수녀님께서 치료를 잘 해 주셔서 아들이 수녀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셨다. 다음 날 방문을 갔는데 눈을 감고 있어서 “잠이 들었나 봐요.” 했더니 아들 이름을 부르며 “교리 배우고 세례 받아야지” 라며 어린 아이 타이르듯 하니깐 눈을 슬며시 뜨고 눈인사를 했다. 그러나 교리를 세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세례, 병자성사 받게 되고 임종실로 옮기게 되었다. 환자와 제대로 대화를 못하였고 다른 가족들은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임종 기도를 하고 몇 시간 후 선종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추모원에 가서 장례절차에 대해 도와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였다. 누나가 장례 전체를 주관하였고 동생이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파산선고 상태여서 아무에게도 연락 할 수도 없ادم 많은 기도

부탁한다고 하면서 동생 가정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 주었고 수녀님께서 올케에게 연락을 하여 그 짧은 시간에 화해를 할 수 있었다며 너무 감사해 했다.

장례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삼우날 준비 할 것과 미사 봉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렸고 삼우 날 차가 한대 밖에 없어서 온 가족이 가고 싶어 하길래 봉사자 차로 모시기로 하였다. 삼우 날 부모님, 누나가 죽들, 형, 부인, 아들, 다 함께 미사 봉헌하고 정관 남골당에 가서 기도하고 점심 식사도중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인 것이 언제이든가” 라며 어머니가 눈시울을 적셨다. 아마 아들이 없고 손자와 젊은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았다. 함께 하긴 하였지만 부인은 8년 동안 헤어져 있어서인지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아이는 고모와 누나들과 함께 하는 게 좋아서 마냥 떠들어 대며 헤어지기 싫어했다.

일주일일 지난 후 수녀님과 첫 가정 방문을 갔는데 작은 방에 영정 사진을 차려 놓고 아침이면 “잘 잤느냐”며 아들에게 이야기 하고 모든 게 엄마의 죄라며 용서를 청한다고 했다. 일주일일 한번 씩 정관에 큰 아들, 딸과 함께 가고 있고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일요일에 따로 간다고 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얘기를 하며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마음 아파하셨고 며느리가 손자 잘 키우고 살았으면 하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법적 문제가 아직 해결이 나지 않았지만 잘 될 거라며 우리 부부 이제 욕심 없이 방 한 칸에 초췌하게 신앙생활 잘 하며 살고 싶다고 했다. 지난 6월 7일 남천성당에 아버지, 아들이 함께 교리반에 등록하여 잘 다니고 있으며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